

메이지시대 문학계에 나타난 교쿠테이 바킨(曲亭馬琴)의 영향*

－ 쓰보우치 쇼요(坪内逍遙)와
야마다 비묘(山田美妙)를 중심으로 －

홍 성 준**

明治時代に入り近代的国家体制を備えることになった日本は、社会文化的にも多くの変化を迎えるようになった。西洋の文物が積極的に入るようになってから様々な分野において急速に近代化が行われた。このような社会文化的な近代化の流れの中に日本の文学界が置かれていたのである。

山田美妙は小説に言文一致という革新的な文体を導入したことで高い評価を得ている作者である。彼は既存の戯作に見える文章から離れ、西洋の言文一致体を受け入れ華麗な文章を試みた。彼は『堅琴草紙』で自らを「二世曲亭馬琴」と称し、馬琴の影響を受けたことを表した。また、坪内逍遙は日本の近代に活躍した小説家、評論家である。小説の原理と技法について記述した『小説神髓』は、当時の日本文学界に訪れた伝統文学と近代文学の転換の時点にきっかけとなった評論集である。彼もまた馬琴を批判しつつ受容し、日本文学界がその影響をたくさん受けていることを明らかにしながらも、そこから離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主張した。

江戸時代後期を代表する馬琴の作品は明治時代に入っても日本人に持続的に読まれた。明治時代初期は新たに登場した近代的な文学思潮と馬琴文学の特徴が共に現れる時期と言える。

キーワード：曲亭馬琴、坪内逍遙、山田美妙、知識、文学

(교쿠테이 바킨, 쓰보우치 쇼요, 야마다 비묘, 지식, 문학)

1. 머리말

1868년에 메이지시대가 시작되어 근대적 국가체제를 갖추게 된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1079180)

**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교수, hosjian@dankook.ac.kr

일본은 사회, 문화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서양 문물이 적극적으로 들어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급속하게 근대화가 이루어졌으며, 그 때문에 이 시기를 다른 말로 ‘개화기(開化期)’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인 근대화의 흐름 속에 일본의 문학계도 놓여 있었다. 서양 사상의 유입과 함께 서양의 문학 사조(思潮)도 들어오게 되어 일본에서는 소위 계몽시대가 열렸다. 계몽사상은 메이지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많은 대중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었다. 서양의 문학 작품을 번역한 번역소설이 등장한 것이 이 시기이며 이를 메이지시대의 ‘번역문학’이라고도 한다.

쓰보우치 쇼요(坪内逍遙, 1859-1935)가 『소설신수(小説神髓)』를 발표한 1885-1886년 이전까지의 문학을 대략 메이지시대 초기 문학이라고 하며, 이 시기의 문학은 ‘게사쿠(戯作) 문학’, ‘번역문학’, ‘정치소설’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에도시대가 막을 내린 지 오래 지나지 않아 게사쿠의 영향이 많이 남아있던 시기이다. 에도시대 후기의 게사쿠의 특징과 메이지시대 초기의 서양 문예 사조의 유입이 어우러져 새로운 형태의 ‘게사쿠 문학’이 탄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게사쿠라고 하더라도 에도시대까지의 작품은 일본의 전통문학으로 인정하고 메이지시대 이후의 작품은 서양의 영향을 크게 받은 새로운 문학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일본문학에서 에도시대까지의 문학을 ‘고전문학’, 그 이후의 문학을 ‘근·현대문학’으로 구분하는 것도 이러한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에도시대 후기의 대표적인 게사쿠 작가인 교쿠테이 바킨(曲亭馬琴, 1767-1848)의 작품은 메이지시대에 들어서도 일본인들에게 꾸준히 읽혔다. 특히 메이지시대 초기는 에도시대의 감성이 여전히 남아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일본의 독자들은 낯선 서양 문학보다 게사쿠에 아직 익숙하였다. 또한 메이지시대 초기의 작가들 또한 바킨의 작품을 읽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크게 받았다. 새롭게 등장한 근대적인 문학 사조와 바킨 문학의 특징이 함께 나타나는 작품이 등장하였던 것이다.

메이지시대의 바킨의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일본 문학사에서도 근세문학에서 근대문학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바킨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고 말하고 있다. 제2의 바킨이라고 칭하며 창작 활동을 펼친 야마다 비묘(山田美妙, 1868-1910)에 관한 연구는 시오타 료헤(塩田良平)의 『야마다 비묘 연구(山田美妙研究)』(1989년 간행)가 대표적이다. 야마다 비묘의 문체와 역사소설의 구성을 중심으로 근대로의 전환기에 활약한 작가로서의 비묘의 위치를 명확히 제시하였다.¹⁾ 또한 미카메 다쓰지(三瓶達司)는 메이지시대의 사극과 역사소설을 연구하며 야마다 비묘의 역사소설가로서의 위상을 확립시켰다.²⁾ 그리고 가시와기 다카오(柏木隆雄)는 『坪内逍遙『小説神髓』と曲亭馬琴』이라는 논문에서 쇼요의 바킨 비평을 소개하면서 메이지시대에 있어서의 그 영향력을 살펴보고 있다.³⁾ 하시우라 후미이치(橋浦史一)는 『소설신수』에 보이는 바킨 관련 내용을 통하여 메이지시대에 들어서도 큰 영향을 미치는 바킨 작품의 특징을 분석하였다.⁴⁾ 이와 같은 선행연구는 에도시대의 작가인 바킨과 메이지시대의 작가인 야마다 비묘와 쓰보우치 쇼요를 통하여 근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시대 상황에서 바킨이 일본 문학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큰 틀에서 소개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연구들은 메이지시대의 관점에서 이전 시대인 에도시대의 작가를 바라보고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에도시대의 관점에서 이후의 문학계에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메이지시대 초기의 일본 문학계에 남겨진 바킨 문학의 영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야마다 비묘의 처녀작인 『다테코토조시』에 보이는

1) 塩田良平(1989) 『山田美妙研究』 日本図書センター, pp.1-561.

2) 三瓶達司(1976) 「山田美妙の歴史小説覚書—その資料的視点から—」 『日本文学研究』 第15号、大東文化大学日本文学会, pp.43-53.

3) 柏木隆雄(2008) 「坪内逍遙『小説神髓』と曲亭馬琴」 『語文』90、大阪大学国語国文学会, pp.21-30.

4) 橋浦史一(1972) 「『小説神髓』における馬琴の投影」 『日本文芸論稿』4、東北大学文芸談話会, pp.23-29.

바킨의 수용 양상을 살펴보고, 쓰보우치 쇼요의 『소설신수』에 보이는 바킨 작품의 비평과 근대소설론을 분석하도록 한다.

2. 메이지시대에 보이는 에도시대 작품의 평가

메이지시대에는 아와시마 간게쓰(淡島寒月, 1859-1926)에 의한 사이카쿠 작품의 재평가를 계기로 겐로쿠(元禄) 문학이 다시 유행하였다. 간게쓰는 1887년경에 고다 로한(幸田露伴, 1867-1947), 오자키 고요(尾崎紅葉, 1868-1903)와 같은 소설가들과 교류를 하며 사이카쿠의 작품을 다시 읽었으며, 로한의 『고쇼쿠 고닌온나(好色五人女)』(1686년 간행)의 필사본 제작과 고요의 사이카쿠 작품(作風) 답습과 함께 사이카쿠 작품의 재평가를 이루어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카쿠 작품의 재평가는 1880년대 후반, 즉 메이지 중기에 이르러서 행해진 것이며, 그 이전인 메이지 초기의 문단은 분카(文化; 1804-1818), 분세이(文政; 1818-1831), 덴포(天保; 1831-1845)에 유행한 게사쿠(戯作)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1880년대 후반의 시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분카, 분세이, 덴포기는 불과 40~80여 년 전이기 때문에 정치 체제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문화적 영향은 많이 남아있었다고 볼 수 있다. 메이지시대에 유행한 대중소설이나 우키요에(浮世絵)가 그 내용이나 색채에 있어 시대적 특성을 띠고 있지만 에도시대의 체재(体裁)나 작품 구성 요소를 대부분 답습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에도시대 후기의 게사쿠를 대표하는 작가는 요미혼(読本) 장르에서는 교쿠테이 바킨이고 고칸(合卷) 장르에서는 류테이 다네히코(柳亭種彦, 1783-1842)이다. 그밖에도 소설 장르별로 대표 작가가 있지만 본 장에서는 이 두 작가의 대표작품과 후속작품을 소개하기로 한다.

우선 고칸의 대표작가인 류테이 다네히코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다네히코를 언급하는 이유는 그가 에도시대에 가장 많이 팔린 작품의 작가이기 때문이다. 『니세무라사키 이나카젠지(修紫田舎源

氏』(1829-1842년 간행)는 38편 152책까지 간행이 되고 막부의 절판 명령에 의해 미완성으로 끝난 작품이다. 하지만 이 작품은 정상적으로 간행되던 시기에 매해 수 편씩 간행이 되고 한 편당 1만부씩 인쇄하였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다. 일본 최고의 고전작품인 『겐지모노가타리』를 패러디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일반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이다. 『니세무라사키 이나카겐지』가 간행되던 시기는 이미 바킨을 중심으로 중국 고전의 번안물이 많이 나오고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온 <수호전물>의 인기로 인하여 유사한 작품이 다수 간행된 상황에서 새로운 경향의 작품에 대한 갈망이 싹트던 시기였다. 『겐지모노가타리』에 담겨 있는 연애담, 전통문화, 전통의상 등 여러 가지 일본적인 요소들이 당시 독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니세무라사키 이나카겐지』는 에도시대 후기의 베스트셀러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그리고 『니세무라사키 이나카겐지』를 모방한 작품으로는 『소노유카리 히나노오모카게(其由縁鄙倂)』(1847-1864년 간행) 등의 소설 작품, 『고쇼모요 겐지노에도조메(内裡模様源氏染)』(1838년 3월 市村座 상연), 『겐지모요 후리소데히나가타(源氏模様娘雛形)』(1851년 9월 市村座 상연) 등의 가부키 작품을 들 수 있다. 이 작품들은 에도 막부 말기에 간행되거나 상연된 작품인데, 다네히코 사후에도 그의 대표작을 모방한 작품들이 계속 등장하였음을 말해준다.

다네히코는 에도시대 초기 또는 그 이전의 일본 전통문화를 작품 속에 담아내는 능력이 탁월하였다. 『니세무라사키 이나카겐지』는 패러디라는 수법으로 『겐지모노가타리』를 새롭게 구상한 작품으로 철저한 고증을 통한 전통 문화의 재탄생을 자신의 창작 수법으로 정착시켰다. 또한 이 작품은 겐지에(源氏絵)라는 우키요에(浮世絵)로 다시 재탄생되는 과정을 거치며 일본 문학계에서 그 영향력을 이어나갔다.⁵⁾

다음으로 요미혼의 대표작가인 교큐테이 바킨에 대해서 살펴보기

5) 김미진(2019) 「우키요에(浮世絵)로 재탄생된 근세후기 소설-『니세무라사키 이나카겐지(修紫田舎源氏)』와 「소노스가타 유카리노우쓰시에(其姿紫の写絵)」를 중심으로-」 『일본연구』80,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pp.103-122 참조.

로 하겠다. 바킨은 사전물 요미혼(史伝物読本) 7작품을 비롯한 다수의 요미혼 작품과 고칸, 기보시(黄表紙) 등의 다양한 소설 장르를 집필하였다. 바킨의 사전물 요미혼 7작품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1〉 바킨의 사전물 요미혼

제목	간행 연도
『진세쓰 유미하리즈키』 (椿説弓張月)	1807-1811
『순칸 소즈 시마모노가타리』 (俊寛僧都嶋物語)	1808
『라이고 아자리 가이소텐』 (頼豪阿闍梨怪鼠伝)	1808
『난소 사토미 핫켄텐』 (南総里見八犬伝)	1814-1842
『아사이나 시마메구리노키』 (朝夷巡嶋記)	1815-1822
『긴세세쓰 비쇼넨로쿠』 (近世説美少年録)	1829-1832
『가이칸쿄키 교카쿠텐』 (開巻驚奇侠客伝)	1832-1835

바킨이 집필한 요미혼은 총 40여 작품이며 골고루 인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사전물 요미혼 7작품이 더욱 큰 인기를 끌었다.⁶⁾ 현재 그의 대표작으로 언급되는 『난소 사토미 핫켄텐(南総里見八犬伝)』은 에도시대 때에만 연간 500부씩 간행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⁷⁾ 또한 바킨의 작품은 책 대여점인 가시혼야(貸本屋)로 유통되거나 후인본(後刷本)이 제작된 경우도 많아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메이지시대에 바킨 작품에 대해 여러 평가가 나오게 되었는데, 그의 작품 중에서도 『난소 사토미 핫켄텐』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

6) 바킨은 기보시 60여 작품, 고칸 70여 작품, 요미혼 40여 작품 등을 집필하였으며, 그 밖에도 하이카이 관련 서적, 고증수필 등과 같은 저작물도 다수 집필하였다.

7) 印刷博物館コレクション『南総里見八犬伝』 <https://www.printing-museum.org/collection/looking/34797.php>(검색일:2021.01.05)

루었다. 이 작품은 메이지시대에 들어서도 많은 독자들로부터 사랑 받았고, 열렬한 독자 중에는 메이지시대를 대표하는 문인인 마사오카 시키(正岡子規, 1867-1902)도 있었다.

그는 19세 때 『난소 사토미 핫켄텐』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아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작품은 이 작품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마사오카 시키가 가장 좋아한 소설은 『수호전』이었는데 그에 버금가는 작품으로 『난소 사토미 핫켄텐』을 꼽았으며, “『핫켄텐』은 22-23세 경까지 나의 애독서 중 하나였다.⁸⁾”고 말하였다. 마사오카 시키는 『난소 사토미 핫켄텐』의 애독자였던 만큼 작품에 대한 애정이 깊어 비판의 목소리도 서슴지 않았다. 권선징악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으면서 완벽한 인간상을 추구하는 점이 바로 이 작품의 단점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작품에 대한 스스럼없는 평가는 바킨을 진정으로 좋아하는 독자이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것이었다. 바킨이 생전에 깊은 교우 관계를 맺은 사우(四友)인 이시카와 조스이(石川豊翠, 1807-1841), 오즈 게이소(小津桂窓, 1804-1858), 기무라 모쿠로(木村黙老, 1774-1857), 도노무라 조사이(殿村篠斎, 1779-1847)와 같은 문인들 역시 바킨과 서신 등을 주고받으며 작품에 대한 심도 있는 비판과 의견 교환을 하였는데, 이는 바킨과의 친분이 두터웠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 생각된다.

일본 근대를 대표하는 작가인 고다 로한(幸田露伴, 1867-1947)은 「바킨의 소설과 그 당시의 실제 사회(馬琴の小説とその當時の実社会)」(1908년 4월)라는 글을 통하여 바킨 작품이 지닌 실제 사회와의 괴리를 나타내었다. 로한은 바킨이 작품에서 사용한 언어, 풍속(風俗), 관습, 의식(儀式), 신앙, 사상 등이 당시 사회와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소설 속의 인물과 실제 사회의 인물과의 관계, 소설의 무대와 실제 무대의 관계 등을 살펴보고 직접적으로 관계를 지니지 않음을 주장하였다.⁹⁾

8) 마사오카 시키는 「수호전과 핫켄텐(水滸伝と八犬伝)」(1900년 집필)이라는 글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 작품으로 『수호전』과 『핫켄텐』을 언급하였다.

9) 曲亭馬琴作・小池藤五郎校訂(1990) 『南総里見八犬伝』10、岩波書店、pp.347-358 참조.

고다 로한은 바킨과 관련된 평론을 다수 발표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바킨의 소설과 그 당시의 실사회」는 바킨 작품에 대한 메이지시대 당시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바킨이 작품 속 시대와 실제 사회를 동일한 선상에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당시 평가를 뒤집는 결론을 내었다. 메이지시대에 바킨의 작품이 지속적으로 읽히고 그에 대한 비평이 계속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메이지시대에 들어 서구화되기 시작한 일본 문학계는 그때까지 정점에 올라있던 바킨의 작품이나 작품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 가운데 『난소 사토미 핫켄텐』을 중심으로 한 바킨 작품의 결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고다 로한의 비평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 나타난 하나의 움직임이었으며 이는 바킨의 영향력이 아직도 건재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야마다 비묘의 『다테코토조시』

야마다 비묘는 소설에 언문일치라는 혁신적인 문체를 도입한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작가이다. 그는 기존의 계사쿠에 보이는 문장에서 벗어나 서양의 언문일치체를 받아들여 세련된 문장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문장을 활용하여 비묘는 처녀작인 『다테코토조시(堅琴草紙)』를 비롯하여 『무사시노(武蔵野)』, 『고초(蝴蝶)』, 유고작인 『다이라노 기요모리(平清盛)』에 이르기까지 많은 역사소설을 집필하였다. 동시대에 활약한 작가인 오자키 고요가 사실소설(写実小説)에 능했던 것처럼 비묘는 역사소설에 능했다. 메이지 문학사에 있어 역사소설가로써의 위치를 구축하였던 것이다.¹⁰⁾

『다테코토조시』는 영국의 알프레드 대왕의 이야기를 변안한 작품이다. 『가라쿠타 문고(我楽多文庫)』의 제1집(1885년 5월), 제2집(1885년 6월)에 발표되었으며 비묘의 언문일치체가 확립되기 이전

10) 三瓶達司(1976) 前掲論文、p.43 참조.

의 작품이다.

『다테코토조시』의 문장은 에도시대 후기부터 메이지시대 초기까지 유행한 요미혼의 문장 형식을 따랐다. 그리고 비묘는 특히 바킨의 문체에 흥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비묘 자신의 기술이나 주변 문인의 기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당시의 나는 히자쿠리게(膝栗毛)가 싫었다. 더욱이 나는 그 때 바킨에 심취해 있었다. 바킨에 심취했던 입장에서 말하자면 잇쿠(一久)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먼지와 같이 보였다.

その頃の自分と云うては膝栗毛は嫌ひであつた。而も自分のその頃は馬琴に一切心酔した。馬琴心酔の方から云へば一久崇拜の人達は塵のやうにのみ見えた¹¹⁾。

인용문은 1884년에 비묘가 오자키 고요(尾崎紅葉, 1868-1903)와 대화를 나누면서 생각했던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고요를 '먼지'로 비유하여 다소 노골적인 면도 있으나 이 당시 비묘가 바킨에 심취해 있었음을 명백히 말해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고요는 아래와 같은 기록을 남겼다.

야마다가 이미 『다테코토조시』라는 한 편을 집필하여 괴로움에서 평판을 기다리는 자였다는 것은 어떠한가요. 그러한 것을 썼으니 부디 한번 읽고 비평을 해달라고 하여 150-160쪽이나 되는 한 권의 초고를 나에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중략) 문장은 바킨으로부터 배워 실로 잘 쓰여져 있어 나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쉽사리 비평할 곳이 없이 경복(敬服)버렸습니다.

山田が既に堅琴草紙なる一篇を綴つて、疾から価を待つ者であつたのは奈何です。然云ふ物を書いたから、是非一読して批評をしてくれと言つて百五六十枚も有る一冊の草稿を私に見せたのであります。(中略)文章は馬琴を學んで、實に好く出来て居て、私は舌を巻きました。なかノ批評どころではない、敬服して了つたのです¹²⁾。

11) 야마다 비묘가 1904년에 『文芸俱樂部』에 발표한 「紅葉子追憶の記」에 수록된 내용이다. 山田美妙(2015) 『山田美妙集』10、臨川書店、pp.1-530 참조.

12) 오자키 고요가 1901년에 『新小説』에 발표한 「硯友社の沿革」에 수록된 내용이다.

인용문에서 비묘가 바킨의 문장을 답습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요가 비묘의 문장에 대해 감탄한 것이 바킨의 문장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비묘가 『다테코토조시』의 문체로 요미혼조(読本調)를 사용한 것은 그 자신이 바킨으로부터 감화(感化)되었기 때문이면서 옛것을 추구하는 문학 의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¹³⁾

비묘는 스스로를 「2세 교쿠테이 바킨(二世曲亭馬琴)」이라고 칭하며 바킨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였다. 『다테코토조시』의 작가명에 「2세 교쿠테이 바킨」이라고 기재해 둔 것을 비롯하여 몇몇 문집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비묘의 문집 중에서 『다테코토조시』 이외에 스스로를 바킨이라고 칭한 문집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⁴⁾

〈표 2〉 비묘가 스스로를 바킨이라고 칭한 문집

제목	내용
「時文の弊」	1885년 9월 13일 발행 필사회람판 『가라쿠타 문고』 제 3집에 「二世曲亭主人」 명으로 게재됨.
「滑稽貝屏風序」	1885년 9월 13일 발행 필사회람판 『가라쿠타 문고』 제 3집에 「二世曲亭馬琴」 명으로 게재됨.
「つらゝ」と 「たるひ」との別	1885년 10월 24일 발행 필사회람판 『가라쿠타 문고』 제 4집에 「二世曲亭」 명으로 게재됨.
「滑稽貝屏風第五回評」	1885년 12월 10일 발행 필사회람판 『가라쿠타 문고』 제 5집에 게재된 「滑稽貝屏風 第五回」의 말미에 「忒世曲亭評」이라고 게재됨.
「柳亭種彦翁みまかりに ければ」	1885년 12월 10일 발행 필사회람판 『가라쿠타 문고』 제 5집의 「和歌」에 「忒世曲亭」 명으로 게재됨.
「白菊の考証」	1885년 12월 10일 발행 필사회람판 『가라쿠타 문고』 제 5집에 「二世曲亭」 명으로 게재됨.

靑空文庫「硯友社の沿革」https://www.aozora.gr.jp/cards/000091/files/3830_17027.html(검색일:2021.01.08)

13) 塩田良平(1989) 前掲書, p.284.

14) 山田俊治・十重田裕一(2012) 「解題」『山田美妙集』第一巻、臨川書店、pp.526-527 참조.

이상을 살펴보면, 「2세 교큐테이 바킨(二世曲亭馬琴)」이라고 칭한 것은 『가라쿠타 문고』 제 3집부터 제 5집까지 수록된 문집임을 알 수 있다. 『다테코토조시』의 경우 『가라쿠타 문고』 제 1집(1885년 5월 발행)과 제 2집(1885년 6월 발행)에 수록되었으므로, 이들 모두는 1885년에 발행된 『가라쿠타 문고』에 수록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1885년은 비묘의 작가 활동 초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그 해 2월에 오자키 고요, 마루오카 규카(丸岡九華), 이시바시 시안(石橋思案) 등과 겐유사(硯友社)를 결성하였다.

이처럼 비묘는 『다테코토조시』의 필자명을 「2세 교큐테이 바킨」으로 기입하고 작품의 문체 역시 바킨의 요미혼조를 사용하였다. 메이지시대 초기에는 아직 바킨의 영향이 크게 남아있던 시기인 데다 역사소설을 집필할 때에는 바킨의 작풍을 따라야 한다는 비묘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4. 쓰보우치 쇼요의 『소설신수』

쓰보우치 쇼요는 일본 근대 시기에 활약한 소설가이자 평론가이다. 소설의 원리와 기법에 대해 기술한 『소설신수(小説神髓)』(1885년 9월-1886년 4월 발표)로 잘 알려져 있으며, 당시 일본 문학계가 마주한 전통문학과 근대문학의 전환 시점에 계기가 된 평론집이다. 게사쿠라는 통속소설의 흐름을 받아들일 것인가, 서양 사상을 받아들인 번역소설·정치소설을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과도기적 양상을 잘 살펴볼 수가 있다.¹⁵⁾

『소설신수』는 다음과 같이 상, 하 두 권, 총 11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권: 소설총론, 소설의 변천, 소설의 주안(主眼), 소설의 종류, 소설의 비익(裨益)

15) 홍성준(2019) 「『소설신수(小説神髓)』의 역사소설론-지식 수용의 관점으로 본 과도기적 특징을 중심으로-」 『일본학연구』56,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p.84.

하권: 소설법칙총론, 문체론, 소설 각색의 법칙, 시대소설의 각색,
주인공의 설치, 서사법

‘소설’이라고 하는 문학 장르의 전반적인 설명과 창작을 위한 여러 ‘소설 법칙’에 대한 소요 자신의 견해를 기술한 책이라 할 수 있다.

쇼요는 우치다 로안(内田魯庵, 1868-1929)으로부터 ‘메이지 문학의 가장 위대한 개척자(明治の文学の最も偉大なる開拓者)’¹⁶⁾라고 칭송받았는데, 이는 ‘소설’이라는 문학 장르의 개념을 정립하고 일본 문학계의 혼란스러운 국면 속에서 근대문학으로의 자연스러운 전환을 이루어낸 공적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소설의 개념 정립과 『소설신수』에 대한 최근의 선행연구에 나타난 기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늘날 novel의 번역어로 정착된 ‘소설(小説)’이라는 용어는 본래 중국에서 하찮은 의론, 또는 민간 속설(俗說)과 속화(俗話)의 기록 등을 의미하는 말이었다. 그것을 근대에 이르러 새롭게 탄생시킨 공적은 물론 쓰보우치 쇼요 한 사람만의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모노가타리(物語)를 황당무계한 심심풀이 오락으로써의 ‘게사쿠(戯作)’에서 사람의 마음과 사회의 모습을 실제 인생과 같이 담아내는-환연하자면 ‘인정(人情)’과 ‘세태(世態)’를 있는 그대로 ‘모사(模写)’하는-새로운 시대의 그릇인 ‘소설(模写)’로 이끈 큰 공적은 역시 쓰보우치 쇼요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적극적이고 과감한 도전이 『소설신수』였던 것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다.

今日、novelの訳語として定着している「小説」という言葉は、もともと中国において、取るに足りないつまらない議論、あるいは民間の伝説俗話の記録などを意味する言葉だった。それを近代において新しく蘇らせた功績は、もちろん坪内逍遙ひとりのものではないけれども、日本の物語を、荒唐無稽な暇つぶしの娯楽としての「戯作」から、人の思いと社会の姿を実人生さながらに盛り

16) 우치다 로안은 1912년에 『新潮』에 발표한 「明治の文学の開拓者」에서 이와 같이 말하였다. 靑空文庫「明治の文学の開拓者」https://www.aozora.gr.jp/cards/000165/files/49575_43500.html(검색일:2021.01.08)

込む、—いいかえれば「人情」と「世態」をありのままに「模写」する、新しい時代の器としての「小説(ノベル)」へと導いた大きな功績は、やはり坪内逍遙のものだろう。その積極果敢な挑戦が『小説神髓』であったことは、あらためていうまでもない¹⁷⁾。

소설이라는 용어의 정착에 기여를 한 쓰보우치 쇼요의 평론집 『소설신수』를 잘 나타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근대문학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된 『소설신수』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큐데이 바킨의 작품 평론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쇼요는 바킨 문학을 부정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¹⁸⁾, 그로 인하여 일본 근대문학은 바킨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때까지 『난소 사토미 핫켄텐』이나 『긴세세쓰 비쇼넨로쿠(近世説美少年録)』(1828-1834년간행)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던 바킨의 작품은 『소설신수』로 인하여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원래부터 바킨을 가장 뛰어난 소설가라고 생각하고 있던 쇼요가 바킨 작품에 대한 좋은 평가를 뒤집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소설신수』에 전반적으로 보여지는 바킨 작품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쇼요는 소설가로서의 바킨의 업적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다음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킨 작품에 대해서는 나 스스로 별도로 주장하는 바가 있다. 다음 기회에 기하도록 하겠다.

曲亭翁(きょくていおう)の著作につきては、おのれおのづから別に論あり。その折を得て説くよしあるべし¹⁹⁾。

하지만 바킨 작품에 대한 별도의 기술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17) 宗像和重(2010) 「解説「小説」をノベルに」『小説神髓』岩波文庫、p.263.

18) 柏木隆雄(2008) 前掲論文、p.23.

19) 坪内逍遙(2010) 『小説神髓』岩波文庫、p.54. 원문의 후리가나는 가독성(글자 크기와 줄 간격)을 고려하여 괄호로 표기함. 이하 동.

보인다. 어찌되었든 쇼요는 바킨 작품의 문학사적인 위치는 인정한 가운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 예를 들어, 『난소 사토미 핫켄덴』에서 인정(人情)이 그려지지 않고 핫켄시(八犬士)가 너무나 이상적인 인물로 만들어진 것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쇼요의 「慨世士伝はしがき」라는 글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그러니까 소설의 주체는 인정(人情)과 세태(世態)뿐이다. 인정이란 정욕(情欲)이다. 정욕은 즉 칠정(七情)으로, 희노애구에 악욕(喜怒哀懼愛惡欲)이다. 칠정을 이와 같이 그려내어 정밀하고 주도함이 털끝만큼도 모자람이 없이 인정을 파고들어 가공의 인물을 허구의 세계에서 활약하게 하면서 실존하는 인물과 같이 그려내는 것이 진정한 소설가의 기량이라 할 수 있다. 인정을 그리는데 그 피상적인 것만을 그리는 자는 그것을 진정한 소설이라 말해서는 안된다.

されば小説の主体とすべきは、只彼(か)の人情(にんじょう)世態(せいたい)のみ人情とは情欲也。情欲は即(すなわ)ち七情(しちじょう)にして、喜怒哀懼愛惡欲(きどあいくあいおよく)是なり。七情の態(たい)を見るが如くに描き出(いだ)して、精密周到(せいみつしゅうとう)毫末(ごうまつ)も洩(も)らすことなく、よく人情を穿(うが)ち尽(つく)して仮設(かせつ)虚空(きょうく)の人物をば仮作界裡(かさくかいり)に活動せしめて、真物(まもの)のごとくに見えしむるを真(まこと)の小説家の技倆(ぎりょう)といふなりよし。人情をば写せばとて其皮相のみを写したる者はいまだ之を真(しん)の小説とはいふ可(べか)らず²⁰⁾。

사실 쇼요의 이러한 견해는 바킨의 작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라기보다 바킨의 아류작을 비난한 것이었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²¹⁾ 에도시대 후기를 대표하는 작가라고 하면 바킨이었기 때문에 메이지시대에 들어서도 그 인기는 떨어질 일이 없었다. 작가를 지망하는 사람들은 바킨 작품을 적어도 한 번씩은 읽었다고 볼 수 있다. 쇼요도 역시 바킨 작품의 애

20) 坪内逍遙(2010) 前掲書、pp.197-198.

21) 柏木隆雄(2008) 前掲論文、p.24.

독자로 알려져 있으며 어렸을 적에는 『난소 사토미 핫켄텐』을 아주 감명 깊게 읽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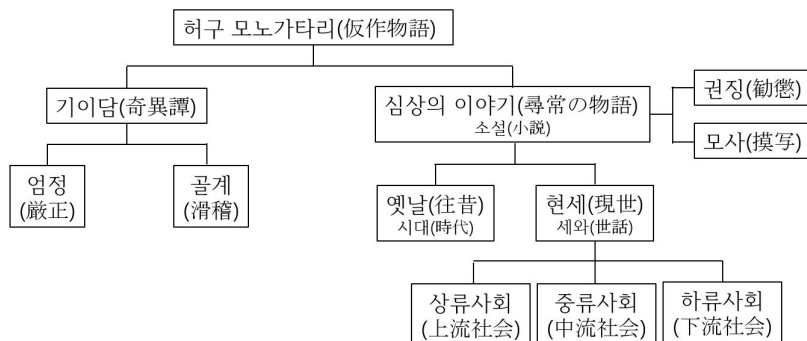
바킨이 구사한 문체를 쇼요는 ‘요미혼체(稗史体)’라고 칭하였다. 요미혼체란 아속절충체(雅俗折衷体)와 유사한 문체를 말한다. 쇼요는 『소설신수』에서 『난소 사토미 핫켄텐』과 『긴세세쓰 비쇼넨로쿠』의 본문을 인용한 후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이 문체로 기술한 문장은 서술문에 아언(雅言) 70~80퍼센트를 섞고 대화문에 아언 50~60퍼센트를 섞었으며, 서술문과 대화문 사이에는 문조(文調)에 커다란 차이도 없기 때문에 그저 붓끝으로 남녀노소와 귀천의 정도를 나누는 데 편리한 점이 많다. 그러므로 상중하(귀천을 뜻함 - 역자 주)의 모습을 서술하거나 오래전의 모습을 그리는 데에 가장 적당한 좋은 문체는 바로 이 문장이다.

この体の文は地を綴るには雅言(がげん)七八分をまじへ、詞(ことば)を綴るには雅言五六分をまじふるからに、地と詞との間に甚(はなは)だしき文調の相違もなく、偏(ひと)へに筆頭の加減によりて貴賤老若男女の言語(ことば)を写しわかつに便利多かり。されば上中下の情態(ありさま)を叙するにも、遠きむかしの景情(ありさま)を写すにも、最も適當せる好文体は即(すなわ)ちこの質の文章なるべし²²⁾。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쇼요는 바킨의 요미혼체가 소설의 문체로써 가장 적합하다고 말하고 있다. 바킨 작품에 보이는 지나치게 정형화된 권선징악적 구도를 비판하지만 문체는 소설에 가장 적합하다는 견해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쇼요는 『소설신수』 상권 「소설의 종류」에서 소설의 종류를 간단한 그림으로 나타냈다.

22) 坪内逍遙(2010) 前掲書、p.116.



『소설신수』 상권, 「소설의 종류」

이 그림에 따르면 소설에는 현세의 ‘세와(世話)’와 옛날의 ‘시대(時代)’가 있고, 세와는 상류사회, 중류사회, 하류사회를 나타낸다.²³⁾ 위 인용문의 밑줄 친 부분은 바로 이 점을 가리키고 있으며, 따라서 요미혼체가 소설의 문체에 가장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²⁴⁾

바킨의 요미혼체는 『소설신수』의 이러한 평가로 인하여 메이지시대 전기의 일본 문학계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에도시대 문단의 영향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쇼요의 주장은 당시의 작가들에게 요미혼체를 사용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언문일치체의 선구자인 야마다 비묘의 문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5. 맺음말

1882년부터 1883년까지의 바킨 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다.

23) 그림은 坪内逍遙(2010) 前掲書、p.67과 쓰보우치 쇼요 지음·정병호 옮김(2007) 『소설신수』 고려대학교출판부, p.79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24) 橋浦史一(1972) 前掲論文、pp.23-24 참조.

문명 개화의 흐름을 따라 진행되어 온 개명적(開明的)인 민중 교화 정책의 대폭적인 후퇴(후쿠자와 유키치나 나카무라 마사나오의 저역서는 교과서 리스트에서 삭제되었다)가 오래된 것을 향한 향수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그리고 그 도화선이 된 것이 유교 도덕의 재편성과 부절을 맞춘 듯 바킨의 요미혼이었다.

文明開化の線に沿って進められてきた開明的な民衆教化政策の大幅な後退(福沢諭吉や中村正直の著訳書は教科書のリストから削られた)が、ふるきものへの郷愁をよびましたのである。そして、その口火を切ったものが儒教道德の再編成と符節を合わせるかのように、馬琴の読本であった²⁵⁾。

당시 출판업계는 에도 계사쿠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바킨의 요미혼이 주목받고 있었다. 실제로 『나소 사토미 핫켄텐』은 1882년부터 1885년까지 총 7점의 번각(翻刻)과 출판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바킨 작품의 인기와 그에 따른 재출판이 이어지던 가운데 비묘는 겐유샤로부터 점차 멀어지고 독자적인 언문일치체를 완성시키기 위해 창작 활동을 이어나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소설신수』의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비묘와 쇼요가 동시대에 활약한 소설가였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서로의 작품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당시의 자료를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소설신수』는 1885년 9월부터 1886년 4월 사이에 발표되었다. 『다테코토조시』가 1885년 5월부터 6월까지 발표되었기 때문에 『소설신수』가 발표되기 전에 비묘는 작품을 완성시켰던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쇼요는 『소설신수』를 발표하기 전에 『다테코토조시』를 읽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것 또한 명확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다테코토조시』를 수록한 『가라쿠타 문고』라는 잡지는 회람판(回覧版)이었기 때문에 겐유샤(硯友社)의 동인(同人) 이외의 사람들이 접할 정도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테코토조시』를 제외하더라도 『가라쿠타 문고』에 수록된 비묘

25) 前田愛(1989) 『近代読者の成立』 筑摩書房、pp.1-496.

의 여러 문집을 살펴보면 그 스스로가 「2세 교쿠테이 바킨」이라고 칭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 점은 1885년에 『소설신수』가 발표된 직후에는 바킨 작품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와 같이 본고에서는 에도시대 후기를 대표하는 바킨의 작품은 메이지시대에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큰 영향을 미쳤고, 그 과정에 비묘와 쇼요가 존재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비묘와 쇼요가 활약한 시기는 바킨 사후 오래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학계에 남겨진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컸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일본 문학계는 에도시대부터 메이지시대로 바뀌는 과도기 속에서 바킨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 이러한 영향력을 문학적 지식이라고 한다면, 바킨의 영향력은 한마디로 '문학적 지식의 전달과 영향'이라는 연구 주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바킨 작품의 연구는 '문학적 지식의 영향 관계'라는 큰 틀 속에서 방향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미진(2019) 「우키요에(浮世絵)로 재탄생된 근세후기 소설-『니세무라사키 이나카젠 지(彦紫田舎源氏)』와 「소노스가타 유카리노우쓰시에(其姿紫の写絵)」를 중심으로-」 『일본연구』80,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pp.103-122.
- 쓰보우치 쇼요 지음 · 정병호 옮김(2007) 『소설신수』 고려대학교출판부, p.79.
- 홍성준(2019) 「『소설신수(小説神髓)』의 역사소설론-지식 수용의 관점으로 본 과도기적 특징을 중심으로-」 『일본학연구』56,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p.84.
- 柏木隆雄(2008) 「坪内逍遙『小説神髓』と曲亭馬琴」 『語文』90、大阪大学国語国文学会、pp.21-30.
- 曲亭馬琴作・小池藤五郎校訂(1990) 『南総里見八犬伝』10、岩波書店、pp.347-358.
- 塩田良平(1989) 『山田美妙研究』 日本図書センター、pp.1-561.
- 坪内逍遙(2010) 『小説神髓』 岩波文庫、p.54、p.67、p.116、pp.197-198.
- 橋浦史一(1972) 「『小説神髓』における馬琴の投影」 『日本文芸論稿』4、東北大学芸談話会、pp.23-29.
- 前田愛(1989) 『近代読者の成立』 筑摩書房、pp.1-496.
- 三瓶達司(1976) 「山田美妙の歴史小説覚書-その資料的視点から-」 『日本文学研究』第15号、大東文化大学日本文学会、pp.43-53.
- 宗像和重(2010) 「解説「小説」をノベルに」 『小説神髓』 岩波文庫、p.263.
- 山田俊治・十重田裕一(2012) 「解題」 『山田美妙集』第一巻、臨川書店、pp.526-527.

山田美妙(2015) 『山田美妙集』10、臨川書店、pp.1-530.

青空文庫『硯友社の沿革』 https://www.aozora.gr.jp/cards/000091/files/3830_17027.html
(검색일:2021.01.08)

青空文庫『明治の文学の開拓者』 https://www.aozora.gr.jp/cards/000165/files/49575_43500.html
(검색일:2021.01.08)

印刷博物館コレクション『南総里見八犬伝』 <https://www.printing-museum.org/collection/looking/34797.php>(검색일:2021.01.05)

〈Abstract〉

The Influence of Kyokutei Bakin in the
Literary World of the Meiji Period
- Focusing on Tsubouchi Shoyo and Yamada Bimyo -

Hong, Sung-Joon

Japan, which entered the Meiji era and established a modern national system, has undergone many social and cultural changes. With the active introduction of the Western culture, modernization took place rapidly in various fields. The Japanese literary world was placed in this social and cultural modernization trend.

Yamada Bimyo is a highly renowned writer who introduced the innovative style of word-sentence matching into a novel. He deviated from the sentences seen in the existing Gesaku and tried to refine sentences by accepting the Western linguistics. In 『Tatekotozoshi』, he called himself 「KyokuteiBakinⅡ」, revealing that he was influenced by Bakin. Also, Tsubouchi Shoyo is a novelist and critic who was active in the modern era of Japan. 『ShosetsuShinzui』, which describes the principles and techniques of novels, is a collection of reviews that triggered the transition from the traditional literature to the modern literature, faced by the Japanese literary world at the time. He also criticized and accepted Bakin, pointing out that the Japanese literary world was heavily influenced by him, and insisted that it should move away from him.

Bakin's work, representing the late Edo period, was steadily read by the Japanese even in the Meiji period. The early Meiji period can be said to be a time when the new modern literary trend and the characteristics of Bakin's literature appeared together.

Key words : Kyokutei Bakin, TsubouchiShoyo, Yamada Bimyo, Knowledge,
Literature

투 고 일 : 2021년 01월 08일

심 사 일 : 2021년 01월 12일

게재확정일 : 2021년 02월 02일